

메이슨캐피탈 미얀마 법인 (MICROFINANCE) 수해지역 구호물품 전달

메이슨캐피탈 (021880)의 미얀마 현지법인인 '메이슨 마이크로파이낸스 (MASON MICROFINANCE)' 가

미얀마의 수해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.



최근 미얀마에 우기로 인하여 내린 큰 비로 100여개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주민들이 대피하고 미얀마 최대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등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.

이에 메이슨캐피탈의 미얀마 현지법인인 MASON MICROFINANCE는 9월 8일 수해지역인 'SWAR' 와 'KYAR INN'에 방문하여 수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쌀과 생수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.

MASON MICROFINANCE는 올해 4월 18일 미얀마에서 소액금융대출 (Microfinance) 영업인가를 취득한 후 현재 수도 네피도의 최대 상업지인 핀마나의 본사를 기점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현지 교외 지역의 농민 혹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자금대출, 구매자금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, 향후 미얀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소상공인대출도 준비중에 있습니다.

MASON MICROFINANCE 의 조현일 법인장은 "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메이슨이 되겠다" 고 밝혔습니다.